

도시 특성에 따른 도시선교 전략

김만형*

고신대 외래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 292
2. 도시의 이해 | 293
3. 도시의 특성 | 307
4. 도시 특성에 따른 도시 선교전략 | 319
5. 결론 | 333

* 김만형 박사는 고신대 신대원에서 목회학석사(M.Div.eq),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신학석사(Th.M), 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석사(MSW),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으로 신학석사(Th.M),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선교학 전공으로 신학박사(Ph.D) 학위를 취득,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베다니교회 협동목사와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외래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도시는 그 면적이나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20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3%만이 도시에 살았다.¹⁾ 그러나 하비 칸(Harvie M. Conn)은 “21세기 말에 세계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²⁾라고 하였다. 이처럼 엄청나게 도시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선교 사역은 대체로 시대적 추세에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급변하는 도시화 현상에 발맞추어 그 선교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지역과 대상,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교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이 시대에 도시선교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선교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21세기의 선교의 승패는 도시에서 결정될 것을 예상하면서 도시환경에 적절한 선교 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³⁾. 도시선교는 성경적인 선교전략의 하나라 볼 수 있다. 구약성경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이나 니느웨,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 이름이 등장하며, 구체적으로 니느웨와 같은 도시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⁴⁾ 신약성경가운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바울의 선교 방법이 도시 중심적 선교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의 선교사역을 보면 안디옥교회 부터 시작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아텐 등 중심도시에서 먼저 전도하여 거점 도시를 만들었으며, 그 후에 도시 주변지역을 전도하였다.

1) 김남식, “도시선교의 신학적 이해,” 『신학지남』, 2000년 겨울호, 7-18.

2) Harvie M. Conn & Manuel Ortiz, 『도시목회와 선교』, 한화룡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31.

3) 임영효,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프라미스키퍼스, 2013), 112.

4) 도시선교는 도시화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Harvie M. Conn & Manuel Ortiz, *Urban Ministry: the Kingdom, the City,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 24.

도시선교의 제창자인 로저 그린웨이(Roger Greenway)는 “도시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차지한다.”⁵⁾고 강조하며, 열국을 제자삼기 위해 먼저 선교의 전략적 중심지로 도시를 제안했다. 다시 말해 도시를 얻는데 실패하는 것은 세계를 제자로 삼는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도시선교는 선교의 한 특수분야가 아니라 선교의 주류라고 주장하였다.⁶⁾ 이것은 도시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도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도시 선교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소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바탕위에 먼저 도시의 특성을 찾아보고 그기에 맞는 선교 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도시의 이해

2.1. 도시의 성경적 이해

2.1.1. 구약의 도시이해

구약성경에 많은 도시가 소개되고 있다. 이들 도시는 모두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로 반영된다. 우리는 도시의 모든 생활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신앙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셨으나, 사람들은 도성을 세우고 안정과 안일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시에

5) Roger S. Greenway,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이재범 역 (서울: 여수론, 1988), 14.
6) Ibid., 37.

대한 심판은 도시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다. 구약의 도시선교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바벨론’, ‘예루살렘’ 등과 같은 도시를 언급할 수 있다.

①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은 죄악의 도성으로서 이 도성의 사람들이 대부분 열락과 타락의 생활로 악에 물들어 있었고, 악에 물든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였다(사 3:9). 이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간의 죄악의 결과 소돔성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악인 때문에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면서 롯과 그 가족에게만은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여(창 19:27-29), 롯과 그 가족만은 유흥불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 소돔성의 멸망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건설도 하시지만, 한편 하나님의 창조의 도와 멀어질 때는 파괴도 불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시를 창조하심도 인간을 위함이고, 파괴를 단행하심도 인간을 위함에 있다는 사실이다. 구약 성경 에스겔 16:49-50절에는 소돔의 죄악상을 잘 보여준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며, 범죄와 타락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뒤따른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② 니느웨

니느웨는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 시리아의 수도로, 1500년이나 지속되었고, 군사적으로는 난공불락이었다. 그러나 니느웨는 압제와 전쟁, 그리고 약탈의

‘피의 도성’(나훔 3:1)이었고, 악행의 수도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 나라 안에서는 훌륭히 사역을 했지만,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아 도망쳤고, 하나님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큰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신다. 요나는 다시 사명을 받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였고, 온 도시가 회개하였고 그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박닝쿨을 통해 죄악된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신다.⁷⁾ 요나서는 특정한 한 도시의 범죄만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열방을 향하여 열려있음과 구원에는 예외가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니느웨는 이방도시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되고 그의 사랑하시는 도시이며, 또한 그 도시의 사회적 그룹까지 온전히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되는데, 도시선교의 좋은 본보기이다.

③ 바벨론

바벨론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예루살렘까지 유린하고 파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긴 안목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바벨론을 보존하시려고 하셨다. 예레미야 29: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예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다”(렘 29:4)라고 말씀하시며 거기서 집을 짓고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가정을 이루고 평안히 지내노라면 때가 될 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7) Roger S. Greenway,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전략』, 19-39.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바벨론 속의 이스라엘은 도시의 거룩한 모범적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지를 잘 말해 준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문화, 상업, 정치 그리고 통신의 주요 중심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들 도시는 예외 없이 중심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건축하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 도시의 구원을 위해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도시교회의 주요관심은 바로 도시의 구원에 있는 것이다.

④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강, 완전의 뜻을 가진 다윗의 성(城)이었고, 유대와 통일 왕국의 수도이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도(聖都)이다.⁸⁾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은 “살렘”(창 14:18)으로서 큰 왕의 성(시 48:2)이란 뜻이다. 여기에는 본래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으나(창 15:8) 여호수아에 의해 여부스 왕이 멸망되고(수 10:5-23), 다윗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하게 된다(삼하 5:6-8). 예루살렘이 종교적 도시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때 부터이며(삼하 6:12-17),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부터는 완전히 종교적 성도(聖都)로 자리잡게 된다(왕상 5:5-8).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종교적 색채가 강한 도시였기에 세계에서 온 많은 순례객들로 붐볐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시에 성벽을 세우고 새 집들을 세운 백성들에게 이전의 파멸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영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후 여호와를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궁핍한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8) 아가페성경사전편찬위원회편, 『아가페성경사전』(서울: 아가페출판사, 1981), 1307.

주게 했다. 여기서 도시선교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들이 세대가 바뀌에 따라 규모와 모양은 각각 다를찌라도 성경은 모든 정황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인류의 모든 언어와 문자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다. 느헤미야 8:1-12절을 살펴보면 성경이 낭독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레위인들에 의해 그 메시지가 설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는 삶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와 문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구약에 나타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바벨론, 예루살렘은 기록하지 못한 도시, 악독의 도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도시들을 사랑하시며, 회개시켜서 그 도시가 보존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도시의 구원”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계 21:13)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도시 즉, 새예루살렘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다.

2.1.2. 신약의 도시이해

신약성경가운데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등 많은 도시가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볼 때에 소아시아 안디옥으로 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방도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도시선교를 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 선교의 역사는 초대 교회의 시작과 함께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⁹⁾ 초대교회의 선교 역시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사도행전은 거의 도시만을 다루고 있다. 초대교회의 선교는 도시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신약 시대의 도시는 구약 시대의 도시들 보다 규모면이나 정치, 사회, 경제적인

9) 이상근, 『사도행전』(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1), 169.

모든 면에서 발달되어 있었다. 신약시대에 형성된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중심으로, 안디옥,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 도시선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안디옥

안디옥은 큰 도시였고 동방의 여왕이라 불리는 시리아의 수도였다. 안디옥은 오론테스강 어귀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다. 고대세계의 안디옥보다 큰 도시는 두 도시 뿐이었는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였다.¹⁰⁾ 이 도시는 로마가 수리아를 제압했을 때, 안디옥은 로마 속국의 수도가 되어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 큰 도시로 이름을 날렸다. 안디옥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 융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사에서 안디옥은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에 세워졌다. 신약 시대의 안디옥은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받던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피신하여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행 11:19-20). 스테반의 순교에 뒤따른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구브로와 구레네 태생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행 19:20).¹¹⁾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교회는 날로 세력이 커가고 숫자가 증가하여 기독교의 모교인 예루살렘과 견주게 되어 후에는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새로운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¹²⁾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는 안디옥교회를 세계 선교의 제 1차 기지로 사용하셨고 본격적인 세계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위하여 바울을 세우셨다.¹³⁾ 그 이후

10) Michael Green, 『현대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109.

11) 임영효,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쿰란출판사, 2001), 220.

12) J. Herbert Kane, 『선교신학의성서적기초』, 이재범 역 (서울: 나단출판사, 1988), 18.

조직된 바울 전도대의 15년 남짓 걸린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아시아의 갈라디아와 아시아 및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 인구가 조밀한 네 지역을 다닐 수 있어서¹⁴⁾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가 크게 이방인의 회심에 기여했다. 이점에 대하여 임영호 교수는 “사도행전이 나타내 보여 주듯이 안디옥에서의 새로운 기독교공동체 형성과 성장은 복음이 그 당시 전 문명세계에 퍼지게 되었던, 범세계 선교운동의 시작을 가져왔다”¹⁵⁾고 말한다.

② 빌립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요, 마게도냐 지역의 주도적인 도시였다(행 16:12). 빌립보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의 선교 사역은 지역교회의 설립을 가져 왔다(행 16:40). 사실상 루디아와 그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노예 소녀, 그리고 간수의 전 가족들이 빌립보교회의 첫 교인들이 되었다(행 16:14-15, 18, 33-34). 이 교회의 성격에 관하여, 존 스토틀(John Stott)는 “여자 사업가와 노예 소녀, 간수, 보다 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들은 각기 다른 세계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모두 같은 복음에 의해 변화되었으며, 같은 교회에 받아 들여졌다.”¹⁶⁾고 말한다. 빌립보교회는 사도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의 빌립보 선교는 순탄하지 않았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이상 오래 목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향해 떠났지만 빌립보교회는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했고,¹⁷⁾ 복음전파를 위해 재정적으로 최대한의 후원을 한 교회였으며, 그리고

13) 이강천, 『2000년대는 한국교회 선교시대』 (서울: 두루선교회, 1989), 37.

14) J. Herbert Kane, 『선교신학의성서적기초』, 18-19.

15) 임영호, 180.

16) John Stott, *The Spirit,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message of Acts*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0), 268.

17) 김연태, 『빌립보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88.

구제에 앞장선 교회였다(고후 8:1-2).

③ 에베소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 세계와 동방의 부유한 교역 통로들을 연결하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이자 아시아 전 지방의 정치, 상업의 중심지였다.¹⁸⁾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령의 수도로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미 세웠던 대부분의 개척교회와 육로, 해상으로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는 곳이었다. 에베소의 지리적 중요성 에 관하여, 폴힐(Polhill)은 “사실상 소아시아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에베소보다 더 좋은 장소를 선택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¹⁹⁾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 도시가 아시아 전 지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 사역의 중심지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다. 바울이 3년 남짓이나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볼 때에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행 20:31). 부르스(Bruce)는 지적하기를 “에베소는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중심지이자 오론텐스(Orontes)지역에서 안디옥 다음으로 중요했다”²⁰⁾라고 말한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도 에베소에서 선교한 것을 보면 에베소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였음을 짐작케 한다(행 18:24-28). 바울은 이곳에서 도시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했다. 누가는 에베소에서 바울 선교 사역의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가 2년간 계속된 두란노 서원에서의 강론이었다고 말한다(행 19:9-10).

키스터메이커(Kistemaker)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신학교를 개설했다. 이들 제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즉 주의

18) John B. Polhil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Acts*. Vol.26.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2), 395.

19) Ibid.

20) F. F. Bruce, *The Book of Acts*. Revis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8), 365.

말씀을 전파하는 제자들이었다.”²¹⁾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두란노 서원의 강론은 에베소교회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와 발판을 제공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효과적인 선교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행 19:10)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성공은 에베소교회를 그 지역의 복음 전파의 중심으로 만들었던, 에베소의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④ 고린도

고린도는 고린도 지협에 위치한 결과 폭넓은 해운 망을 통해서 제일의 상업도시로서 부유했으며, 로마의 속주 아가야의 수도였다. 고린도는 도자기와 청동기구로 유명하였다. 또한 고린도는 로마와 동방 사이에 위치해 있었던 고로 로마세계 안에서 영향력을 지닌 위대한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해상교역으로 인하여 텍사스 주의 휴스턴과 같이 고린도는 인구가 많고, 돈이 풍부하였다. 그 결과 심각한 부도덕의 광장이 되었는데, 술집들이 즐비하여 매음녀들, 창남들이 들끓었다. 그래서 흔히 ‘고린도인’이란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 또한 이곳은 인구 이동이 매우 급속한 관계로 헬라 남부 전역을 대상으로 선교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고린도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건립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다.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동역자로 얻게 되었다.²²⁾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21) Simon J. Kistemaker,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Apost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684-685.

22) 에비레트 F. 해리슨,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 신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358.

이유로 글라스도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자들로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며 바울과 동역하였고, 후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개종자로서 유명한 전도자가 된 아볼로와 같은 명성 있는 자들을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상으로 신약성경가운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를 보면 도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가 도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겠다는 의도에서 인구가 집중되는 중심지인 도시에서 힘을 쏟은 것이다.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주변과 사이의 지역들은 도시교회들의 선교활동에 의해 2차적으로 복음화 되었던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도시들 가운데 안디옥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이 가장 먼저 이방인을 향해서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보이며,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등 대도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성경의 도시는 소도시나 대도시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2. 도시의 신학적 이해

로저 S. 그린웨이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세계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도시인들의 삶에 복음을 적용시키는 선교가 바로 도시선교라고 설명한다. 이어 그린웨이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밀림 속의 외딴 원주민 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해 왔지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현대의 대도시 역시 복음 사역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선교지”라고

설명하며 도시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²³⁾ 그렇다면 도시의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선교신학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2.2.1. 변화의 중심지로서의 도시이해

세계인구의 전망에 의하면 21세기부터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농촌인구보다 많아지게 된다.²⁴⁾ 인구통계 전망은 또한 앞으로 수십년간 세계인구의 증가는 도시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농촌 인구 증가는 정지하거나 쇠퇴 할 것으로 본다. 맥가브란에 의하면 다행히도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쉽게 마음을 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도시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위치한 곳이 될 것이다. 폴 히버트(Hiebert)는 “21세기 초 세계선교의 주요 추세로 도시화, 글로벌 지구의 기독교 쇠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급속한 기독교 성장 등을 들 수 있다”고 증언하면서 21세기의 세계선교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도시화”를 들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의 중심지로서의 도시를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²⁶⁾

2.2.2. 다양성에 따른 선교전략 활용 가능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선교할 수 있는 곳이다. 현실적으로 농촌과 소도시 지역에 복음을 전할려면 선교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가질 수 있다. 문화 인류학의

23) 기독교보, 2002년 5월 4일자, 장신대에서 “도시교회개혁과 성장,” 그린웨이 교수 발표 자료.

24) 김남식, “도시선교의 신학적 이해”, 7.

25)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326.

26) 국민일보 2005년 10월 10일자, 미션면, “세계선교지도자 릴레이 인터뷰” 복음주의 신학자 폴히버트 박사.

부족으로 인해 선교 전략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다행히 도시와 농촌 등 산촌 지역과의 지역적 차이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대학교, 서점, 영화관, 음악당, 문화회관이나 복지관 등 많은 시설들이 도시지역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화선교 전략을 펼친다고 할 때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 민족 뿐만 아니라 계급, 계층 및 여러 형태의 직업 및 사회집단이 섞여 거주하고 있다. 도시 내 이러한 종족집단의 다양성은 사역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²⁷⁾ 그러기에 다양성에 따라서 선교전략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우리는 학교나 병원, 제자훈련 등과 같은 선교 프로젝트를 강구하기 이전에 이들 가운데 있는 선교적 기회를 가늠하고 한두 개의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2.2.3. 교회연합을 통한 선교 네트워크 구축

도시에는 현지 조달이 가능한 선교자원이 존재한다. 우선 일정 규모의 도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한다. 교회들은 연합하여 강력한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교회는 다른 교회와의 협력과 평신도 및 사역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선교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사역의 착수와 효과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선교자원과 선교의 대상 및 기회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일이다. 막연한 선교동원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동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합기관 결성이 필요하고 도시 교회들이 자기 교회 중심적 사역을 탈피하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을 추구하고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전략의 상당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7) 뉴욕의 도시선교 단체인 “New York Urban Impact는 뉴욕시의 다양한 계층임.

2.2.4. 도시를 통한 주변지역 복음화

이것은 사도바울이 행했던 선교전략이기도 하다.²⁸⁾ 그는 도시를 일차 주요 선교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그는 바라보았다.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의 선교는 아시아지방 전체의 복음화와 연결되었다. 도시가 그 주변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시교회는 주변지역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스프링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도시가 복음화 되면 주변 도시로 확산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2.3. 도시의 일반적 이해

도시 개념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를 대표하는 루이스 워스(Louis Wirth)는 “도시는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크고 밀집된 영구적 정착지이다”라고 정의한다. 샌더스(Irwin T. Sanders)는 도시의 정의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구분한다. 지리적 개념은 인구와 건물의 집단을 이루는 지역이며, 사회적 개념은 인구집단을 가진 노동 시장이고, 경제적인 개념은 고도의 산업을 기초로 하는 생산 및 소비의 시장이며, 정치 및 행정적 개념은 통치 조직이나 행정 기관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²⁹⁾

바노베스(J. M. Banovetz)는 도시를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로서 인격을 가지는 공공 서비스의 생산자이며 사상과 상품의 집합점이고 또한 문화의 보고”³⁰⁾라는 종합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도시를 종합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도시를 비도시 지역과 구별할 수 있는 계량화된 객관적인 기준은 인구 밀도와 규모이다. 일본에서는 인구 50,000명 이상이

28) 롤랑 알렌, 『바울의 선교방법론』, 김남식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3), 50.

29) 문병집, 『지역사회개발론』 (서울: 법문사, 1988), 61.

30) 노충희, 『도시 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4), 4.

되어야 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소한 2,500명 이상의 거주자가 있으면 도시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리스는 10,000명, 캐나다에서는 1,000명, 덴마크에서는 겨우 250명 이상이면 도시의 범주에 들어간다.³¹⁾ 한국에서 도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0,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³²⁾ 이처럼 각 나라마다 도시로 규정하는 인구의 범위가 각각 달라서 국제적 의미에서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U.N.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구 20,000명 이상을 도시로 규정하게 되었다.³³⁾ 그러나 이 기준은 단순한 도시적 장소를 의미하므로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도시의 범주는 인구 50만 이상의 장소를 의미하고 일반적인 시의 범주는 인구 10만 이상의 장소로 그 기준이 각각 다르다.³⁴⁾ 산업화 이후 도시는 시인과 종교인들의 눈에 항상 악의 소굴이 되어왔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시로 몰려왔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는 제 2의 도시혁명으로 거의 모든 도시와 사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도시는 인구집중, 경제력 집중, 정치, 문화, 종교, 교육 등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거대한 조직사회라 할 수 있다. 도시들은 복잡한 사회의 신경 센터이다.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도시의 엘리트 집단에게 집중되어져 있다. 유력한 경제 세력, 정부의 소재지,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이며, 현대 인간사회에 영향을 주는 많은 주요한 사회적 혁신들이 도시들로부터 나온다.³⁵⁾

31) 정병관, 『도전받는 현대 목회와 선교』(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24.

32) 지방자치법, 제7조 1항,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07.26.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33) 노충희, 『도시학개론』, 9.

33) Ibid.

34) 정병관, 『도전받는 현대 목회와 선교』, 142.

35) 정병관, 『복음혁명을 주도하는 도시교회 성장학』(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18.

오늘날 도시란 많은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환경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TV에서 다루어지는 도시생활의 내용은 비인간화의 과정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대중매체에 의해 고정 관념화된 도시상은 대부분의 도시민들로 하여금 도시생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차적인 인간관계의 약화와 이차적 인간관계의 만연, 사회관계로부터의 소외, 전통적 이웃관계의 약화, 경쟁에 따른 좌절감, 전통적 도덕율의 약화, 여성역할의 변화, 세대간의 의견대립, 개인주의의 보편화, 가족관계 및 성관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도시에 대한 반응은 서구학자들이 평가한 도시 생활의 특성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³⁶⁾

3. 도시의 특성

도시들의 다양한 구조속에서, 대부분의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의 특성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시의 특성에 맞는 선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도시의 특성은 9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즉 규모와 파워, 세속주의, 중심지, 다양성, 전문화, 변화, 네트워킹, 소외와 빈곤, 소비자주의 등이다.

3.1. 규모와 파워

도시의 특성으로 첫 번째는 규모와 파워를 들 수 있다. 도시의 규모와 파워 면에서 볼 때에는 도시의 사회 구조는 같은 장소에 다양한 문화적인

36) Ibid., 157.

차이를 지닌 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사회, 경제, 정치적 체계들이 없이 일억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조직의 규모가 지니는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구조에는 여러 차원의 사회조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여기에 대하여 폴히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시에 사는 미국인들은 가족, 협의체, 이웃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웃공동체는 수송, 전기와 가스, 청소, 병원, 학교, 공원, 경찰, 법원, 중앙정부 등 도시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바꿔 말하면 도시는 규모가 더 큰 주정부나 국가조직의 일부이다. 각각의 차원에서 정부나 무역, 협의체와 같은 새로운 체제들은 하부단위들의 활동을 조율한다.³⁷⁾

오늘날 도시들은 커져가는 세계 질서의 부분이다. 도시는 상업, 교육, 연구, 여행, 통신, 종교의 중심이다. 이들은 전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망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파워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세계인구의 전망에 의하면 21세기부터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농촌인구보다 많아지게 된다.³⁸⁾ 인구통계 전망은 또한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인구의 증가는 도시에서 이루어 질 것이며 농촌 인구 증가는 정지하거나 쇠퇴 할 것으로 본다.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도시들은 이러한 변화의

37) 폴 G. 히버트, 엘로이스 히버트 메네시스, 『성육신적 선교사역』, 안영권 이대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299.

38) 김남식, “도시선교의 신학적 이해,” 7-18.

중심에 위치한 곳이 될 것이다. 폴 히버트(Hiebert)는 “21세기 초 세계선교의 주요 주세로 도시화, 글로벌 지구의 기독교 쇠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급속한 기독교 성장 등을 들 수 있다.”고 증언하면서 21세기의 세계선교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도시화”를 들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지로서 도시를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³⁹⁾

3.2. 세속주의⁴⁰⁾

세속주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인간중심사상, 합리성, 자유의 이데올로기적인 혼합 양태로 나타내는 자기 완결을 내세우는 폐쇄된 주의, 주장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세속주의는 19세기 이후 영국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자연주의 철학을 지칭하며, 좁은 의미의 것은 평신도의 세속주의로 불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항을 평신도들 만에 의해 집행되는 관리운영을 지칭하는 평신도 중심사상의 세속주의이다.⁴¹⁾ 이 사상은, 시민생활, 사회생활, 또는 정치에 있어 종교의 이상적 가치를 부정하고, 교회가 교회당이나 성당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함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양상을 갖게 되었다. 하나는 세속주의의 종교적 적용으로

39) 국민일보, 2005년 1월 10일자, 미션면 “세계선교지도자 릴레이 인터뷰”(6) 복음주의 인류학자 폴 히버트.

40) 김은수는 “현대 선교의 위기와 선교 신학적 과제”라는 글에서 한국 교회가 직면하는 위기 중 하나로 세속주의를 들고 있다. 즉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속주의가 삶의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여 교회는 단지 종교적 공간으로만 제한을 시키며, 종교는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학회 선교신학회 편, 『선교신학』 1997년 창간호, 193-198.

41) Michael Amaladoss, “The Challenges of Mission Today,” The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The Theological Thought) Vol. 98. Autumn 1997, 87.

나타난 자유주의이며, 또 하나는 세속주의에 반발하여 나타난 근본주의이다.⁴²⁾ 이런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도시안의 많은 인구들에게서 발생하는 이론과 학설들과 여론들은 교회에 적대적 입장을 취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교회의 선교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시의 특성은 인간 중심주의이다. 이를 하비 콕스는 세속화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⁴³⁾ 세속화는 무엇보다도 전통의 붕괴에서 나타나기 쉽다.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 생활양식을 부정하여 민족적 유산이 단절되기 쉬우며 기성세대의 생활과 사고방식이 도전을 받게 된다. 동양적인 아름다운 풍습과 농어촌에서 보기 쉬운 문화유산들이 도시 속에서 그 의미와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의 실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세속화는 신성이나 거룩함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을 많이 드러낸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도의 위력 같은 개념은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며 오히려 현실적인 과학과 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세속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다양하고 심각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가지는 범죄문제이다. 이제 대부분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밤이 공포의 시간이 되고 있다. 폭력이 일반화하여 성폭행을 비롯하여 잔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⁴⁴⁾

3.3. 중심지

도시를 특성 짓는 단어를 고르라면 당연히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하비 칸 등이 주장한 중심지라는 말은 도시가 지리학적으로, 경

42) 정진우 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84.

43) Harvey Cox. 『세속도시』, 구덕관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5.

44) 박광철, “도시화와 세계복음화문제”, 『교수논총 14집』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1989), 135.

45) Harvie M. Conn & Manuel Ortiz, *Urban Ministry* (Downer Grove: InterVarsityPress, 2001),

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영향력을 지니므로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도시는 권력과 부, 지식, 전문가를 끌어드린다. 도시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계층의 중심지를 발견할 수 있다. 도시사회는 또한 이동성이 강하여 도시 내의 지역적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한 해 동안 약 900만 명의 인구이동이 있었는데 그 이동률 19.0% 가운데 도시 내 이동이 13.0%, 도시 간 이동이 6.0%이었다. 이것은 매년 여섯 가구 중 하나는 이사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도시유입 인구는 도시 인구의 7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안에서 우리는 정부, 은행, 상업, 산업, 시장, 교육, 예술, 수송, 종교의 중심지를 발견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주변에 있는 농촌을 지배한다. 많은 경우들에서 국가보다 도시와 도시의 변두리 지역을 연구하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⁴⁶⁾

도시는 중심지로서 농촌을 지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권력을 보아도 그렇다. 권력은 현대의 정부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은 강한 도시지향적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도시지향적인 선입관으로 인해 권력은 도시의 이익을 위해 농촌지역을 개발한다. 대부분의 정부는 농촌지역을 식량의 공급지라는 측면으로 본다. 정부는 농업지역과 농산물에 무거운 세금을 책정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도시의 산업, 주택, 수도, 전기, 통신 등과 같은 사회 간접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용한다.⁴⁷⁾ 도시문화의 풍성함은 부자와 가난한자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도시는 그 생성기부터 엘리트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부자와 정치가들에게 매력이 된다. 가난한 자는 직업에 대한 기대, 재미있는 일들, 정부의 지원 등에 매력을 느낀다. 범죄자들과 사회 이탈자들은 도시의 익명성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의

205-218.

46) Ibid.

47) Ibid.

존재에 매력을 느낀다.⁴⁸⁾ 이러한 다양한 계층을 유인하고 모이게 하는 중심지가 바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3.4. 다양성

도시의 네 번째 특성은 다양성이다. 도시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든다. 사람들은 부족사회나 농촌마을과는 달리 사람들과 더불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내지 않는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도시에서는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따름이다. 그러니 거리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함께 전철을 타고 버스를 함께 타고 간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일 뿐이다. 또한 종족, 계급, 문화, 거주지의 다양성에 기초한 차별성이 뚜렷한 공동체들이 성장하고 있다. 도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장소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각기 종족 특유의 식당들을 찾으며, 다양한 종류의 새 차를 찾고, 다른 장소들을 방문하고, 새로운 패션을 찾는다. 이러한 다양성의 즐거움은 도시적 사고방식의 특징이다.⁴⁹⁾ 또한 도시에는 비슷한 문화적 행위와 가치 그리고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수많은 집단들이 다양한 생활양식을 누리며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⁵⁰⁾ 이로 인해 도시는 점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해진다.⁵¹⁾ 그러므로 도시는 하나의 동질집단이 함께 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며, 다양한 하부문화 그룹이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장소로 이해해야 한다.

48) 폴 G. 히버트, 엘로이스 히버트 메네시스, 『성육신적 선교사역』, 301.

49) Ibid., 302.

50) Ibid.

51) 팀 켈러, 『센터처치』, 오종향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7), 296.

3.5. 전문화

도시의 일반적 특성 중 하나는 전문직의 출현이다.⁵²⁾ 농촌사회와 비교하면 도시사회는 여러 가지 직업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직업 구조에 있어서는 제조업, 상업, 전문업, 서비스업, 관리직과 같은 노동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직업구조의 다양함은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노동계층으로 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들이 있고 빈곤계층으로 주로 빈민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들 도시 안에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층 간 구분이 도시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계층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거주지역, 집의 규모, 승용차의 종류, 활동 영역, 취미 생활 등 모든 삶의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교회의 공동체성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대부분의 농촌사람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종사하는 일에는 별다른 구별이 없다. 농부는 여러 종류의 곡식을 재배하는 법과 다양한 동물들을 돌보는 법, 울타리를 고치는 법, 우물을 파는 법 등 농장을 꾸려 가는데 필요한 수많은 종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가 성장해 감에 따라 직업이 세분화되고 새로운 전문직들이 등장한다. 의사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사는 신경과, 비뇨기과, 소아과, 방사선과, 이비인후과, 외과 의사 등으로 전문화된다. 외과 의사들은 복부, 대장, 눈, 정형, 성형외과 등 한 차원 더 깊은 전문화를 이루게 된다. 성형외과 의사는 신체의 부위들을 다루는 기술 전문가이다. 이와 비슷한 전문화가 교사, 기계를 만들고 수리하는 사람들, 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게서도 발견된다. 전문화는 크기와 복잡성의 기능이다. 복잡한 기술은 전문화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전문화는 역할들로

52) 폴 G. 히버트, 엘로이스 히버트 메네시스, 『성육신적 선교사역』, 306.

53) Ibid.

시작해서 제도로 확장된다. 작은 마을에는 일반 잡화점이 있다. 도시에서는 상점들이 식품점, 자동차 부품점, 자전거 판매점, 웨딩 관련 판매점, 바닥재 판매점, 요식업 등으로 나누어진다. 도시에는 은행, 보험 대리점, 증권시장, 구역센터, 철도, 병원, 고등학교, 대학교, 기술학교 등이 있다. 이런 전문화는 도시를 하부문화 공동체들로 나누는데 기여한다.⁵⁴⁾

3.6. 변화

도시의 여섯 번째 특성은 변화다. 모든 인간사회는 변화한다. 그러나 도시의 변화속도는 농촌사회나 부족사회보다 더 빠르고 급진적이다. 도시의 변화속도가 빠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전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직에 자신들의 전력을 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 과학, 서비스 정보의 성장을 촉진한다. 변화는 새로운 것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도시인들의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변화 속에 대중문화의 꽃이 피게 된다. 둘째, 높은 마스크임 의존도입니다. 도시사회는 라디오, 신문, TV, 잡지 등의 대중매체와 인터넷, 이동 통신 등의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유행이나 습관이 쉽게 퍼져 나가서 규격화된 생활양식이나 행동 방식을 조장할 수 있다. 사회학자인 번바움(Norman Bimbaum)이 지적했듯이 “도시인들의 성격, 심성 무의식 까지도 모든 의미를 기계생산과 시장조직, 관료적 조직주의에 융합시킨다.”⁵⁵⁾ 도시인들로 구성되는 도시교회 역시 마스크임의 영향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러한 마스크임에 대한 지나친 노출은 우리에게 삶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많은 괴리를 접하게 만든다.⁵⁶⁾ 셋째, 변화하는 가족

54) Ibid., 307.

55) Norman Bimbaum, *The Crisis of Industrial Socie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27.

56) 이정성, “대중문화 시대의 그리스도인” 강영안 편,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구조이다. 도시에서는 무엇보다 가족들의 확대가 줄며, 친족 체계의 조직과 기능이 약화되고,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형태가 변하게 되었다. 또 도시에서는 평등주의적 이상이 확산되지만 한편 개인주의 중심의 가족관계가 지배적인 성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는 이혼율도 높고, 결혼가정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⁵⁷⁾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가정 문제와 목회 프로그램을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⁵⁸⁾

3.7. 네트워킹

네트워킹은 단순히 접촉의 ‘그물’의 조성이나 유지를 뜻한다.⁵⁹⁾ 네트워킹이란 말은 최근 널리 알려진 용어가 되었는데 도시사역에 의해 새로 발견된 전문 용어이다.⁶⁰⁾ 도시에서 네트워크는 중간차원의 사회조직 중 주요한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새로운 소식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퍼져 나간다. 사람들은 이웃과 친구들을 통해 좋은 의사를 소개받기도 하고 수선점을 소개받기도 한다. 부부들은 가족행사에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을 초대한다. 어머니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며,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끼리 즐길 파티를 계획하기도 한다. 더글라스 맥코넬(C. Douglas McConnell)은 도시와 도시교회에서 네트워크들이 감당하는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도시사람들은 교제하기를 원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32.

57) Charles William Stewart, *The Ministry as Family Counselor* (Nashville, TN: Abingdon, 1979), 17-18.

58) 엄재중, “가정사목회 반성과 전망,” 『사목』, 300호 2004년 1월호, 82.

59) 하비 콘 외. 『도시교회 개척에서부터 폭발적인 성장까지』, 강승삼·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347.

60) Ibid., 348.

는 사람들로 구성된 핵심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간의 문제를 의논하고, 더불어 사회적 여가를 즐긴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지리적 특성도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규칙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적 기술은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로간의 관계를 잇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비인격적인 도시생활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한다. 네트워크는 도시인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엘리트들은 다른 사람들과 정치적, 또는 사업적 관계를 맺는다.

라리사 롬니츠(Larissa Lomnitz, 1988)는 판자촌에도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의료, 복지, 경찰과 같은 도시체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직장을 잃었을 때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반대로 돈을 빌었을 때는 돈을 빌려준다. 그들도 정보를 교환하고 음식과 담요와 연장, 옷, 다른 물건들을 빌려주며, 아이들과 노인들을 서로 돌보아주며, 서로의 심부름을 해 준다. 그들은 함께 TV를 시청하고,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며,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 때 도덕적, 감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결국 그들은 함께 모여 사회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도시선교에 있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절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3.8. 소외와 빈곤

도시의 또 하나의 특성은 소외와 빈곤이다. 사회학자 루이스 위스(Louise wirth)는 도시생활에 대해 말하기를 “도시 생활은 점점 표피적이고, 비인간화된 인간관계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도의 고립과 뿌리의

식의 빈곤과 혼란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였다.⁶¹⁾ 현대 도시 사회에서 소외의 문제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⁶²⁾ 갠즈(Gans)는 도시안의 인구를 다섯 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그 가운데 소외계층과 빈곤층을 소개하고 있다.⁶³⁾ 여기서 소외계층은 가난, 불안정한 직업, 결혼 가정의 사람들, 도시안의 소수민족들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고, 빈곤층은 노령, 모든 곳에서 경제적 생활이 사실상 힘든 제한된 수입, 이 때문에 도시를 떠날 수 있는 여유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⁶⁴⁾ 특히 도시 빈민은 가장 큰 규모의 소외된 변두리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도시가 공립학교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그곳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 준다면 그 도시에는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린다.⁶⁵⁾ 도시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의 심각한 수준은 실직과 저임금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로는 비인간적인 환경과 슬럼화와 기본적인 음식의 부족과 위생문제, 의료시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등이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그의 책 “새로운 빈곤”에서 “사회의 품위있고 정상적이 사람들은 빈곤층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빈곤층은 전혀 쓸모가 없다. 아무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⁶⁶⁾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빈곤층을 말하는데,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층을 향한 비판을 쏟아 놓고 있다. 빈곤층은 필요 없고, 쓸모없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의 노숙자들의 문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오늘날 경기는 침체되

61) Louice wirth, *Urbanism in the World Perspective* (New York: Crowell, 1968), 49.

62) 송영만, “도시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 도시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30.

63) Herbert Gans, *Urbanism and Suburbanism as Way of Life: Revolution of Definition*, Metropolis Washingt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64) Ibid.

65) 송영만, 93.

66) Zygmunt Bauman, 『새로운 빈곤』, 이수영 역 (서울: 천지인, 2012), 204.

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방의 도시들에게는 노숙자들이 공원이나 역사 주변에 몰려들고 있다. 도시의 특성인 소외와 빈곤 문제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3.9. 소비주의

도시는 기술과 물질적 풍요를 자랑한다. 도시의 거리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상품들로 가득 차 있다. 잡지, 신문, 게시판,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는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 좋은 치약은 우리의 낭만을 부추긴다. 좋은 차를 운행하게 됨을 통해 자기의 신분상승을 나타내기도 한다. 도시의 중요한 상징은 물질 소비의 상징이다. 즉 달라, 엔, 루퍼, 자동차, 좋은 집, 값비싼 음식, 호화스런 생활은 도시의 상징이다. 도시에서의 공적 가치는 부, 사치, 여가의 가치다. 소비는 양질의 삶, 그 이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비는 좋은 상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사랑, 사회적 용인, 눈부신 웃음, 열정적인 사랑의 경험, 건강, 풍부한 활력 등을 제공한다. 소비는 삶의 의미를 준다. 즉, 새 레코드를 사면 몇 주 동안 살아가는 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새자동차를 구매하면 수개월 동안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산다. 반면에 소비는 도시인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고 싶은 것을 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생에 실패했다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소비주의는 현재를 강조한다. 자기만족을 지연시키거나 자기희생이 차지할 공간이 없다. 소비주의는 느낌을 강조한다. ‘만일 느낌이 좋다면, 그것을 하라.’ 그리고 유물적인 용어들로 도덕을 정의한다. 소비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욕에 대한 문제이다. 사람들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왜곡되어져 있으며 억압되어져 있다. 소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며 처방전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가치와

자아 충족감 뿐이다. 이러한 것들은 물질적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비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바꾸어 놓는다. 시간, 전통, 가보, 심지어 성(性)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정치와 종교 조차도 매매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이것은 자신마저도 소비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과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인격도 판다. 이러한 소비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자신이 모든 선택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시점에서 주어졌던 것도 그것이였다.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은 현대의 소비주의가 들려주는 메시지가이기도 하다.

4. 도시 특성에 따른 도시 선교전략

선교전략은 미래를 예상하면서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당장의 결과에 급급하면 급조된 것으로 효과가 반감되거나 미미하게 될 것이다. 선교는 한 두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⁶⁷⁾ 장기적으로 교회가 희망하는 선교 구상에 맞는 전략이 세워지고 그 전략에 따라 선교 프로그램들이 운용되어야 한다. 도시선교에 있어서 전략의 필요성은 도시의 특성에 맞는 선교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도시선교 전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⁶⁸⁾ 도시는 그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 III장에서 살펴 본대로 도시는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규모와 파워, 세속주의, 중심지, 다양성, 전문화, 변화, 네트워킹, 소외와

67) 이재환, “이벤트성 선교 이해를 지양하자,” 『회와 신학』, 2002년 8월호.

68) Peter C. Wagner,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Tools for Effective Mission and Evangelism* (Ventura, CA: Regal Books, 1987), 26.

빈곤, 소비자주의 등이다. 이것은 도시의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통합하여 특성들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 특성에 따른 도시 선교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본장에서는 도시 특성에 따른 도시선교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4.1. 규모와 파워를 가진 도시에 대한 대중선교

도시는 영적전투가 치열한 곳이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범죄, 질병, 실업자,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도시의 부정적 측면에서 도시가 안고 있는 선교적 의미는 지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임스 쉬어러(James Scherer)는 21세기 선교는 대도시에서 판가름 난다고 설교했다.⁶⁹⁾ 그러므로 도시화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동시에 선교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한 것이다. 비브 그릭은 인구 통계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투쟁의 최종 대결장은 도시 내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도시에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오히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도시에서 형성되기도 한다. 인도에서 캘커타와 베나레스는 힌두교의 요새이며 라사는 라마교 세력의 중심이고, 매일 세계인구 1/5이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메카는 이슬람교의 중심이다. 이러한 도시들에는 침투가 어려울 것이고, 박해가 심하며,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많은 어둠의 세력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그 영향력은 도시에 짙게 깔린 구조적인 악과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만연된 물질주의(맘몬)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선교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고해서 선교적 성과가 쉽게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기회만큼

69) James A. Scherer, *Gospel, Church & Kingdom* (Minneapolis, MN: Augsburg, 1987), 47.

이나 도시에서의 전투는 치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사역자들은 무장을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에베소서6:10-17). 그리고 이교적이고 반역적인 도시를 향해 나아갔던 사도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중보기도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우리가 도시에서의 전쟁을 도외시한다면 전투에서 이기기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도시는 아군도 적군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거점인 것이다. 교회는 도시의 지역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지역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지역 도시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있으며 지역사회만의 한 부분인 것이다. 교회의 실존의 근거는 지역사회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기에 도시교회는 연합하여 대중선교의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과 프로그램을 가져야 할 것이고, 다른 사회 기관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사회악의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규모와 파워를 가진 도시에 대한 대중선교는 도시교회의 막중한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2. 세속주의에 대한 사회개혁운동

도시화 현상 속에서 날로 심화되어가는 현상은 도시의 세속화이다. 이는 도시의 바벨론화라고 할 수 있다(계 14:6-8,27; 18:18). 분명 모든 도시화가 세속화의 길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니느웨의 구원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며 종래 하나님의 도시를 사모해야 될 선교의 적지이다. 하비 콕스(H. Cox)는 도시화에 선행된 세속화를 책임있게 보려고 노력했지만 현대문명 속에서 사는 실용주의적 인간을 오히려 찬양함으로써 목회신학까지 세속화시켜 버린 입장을 보게 된다. 도시의 세속화는 교회의 세속화에 영향을 주었고 개중에는 도시 세속화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세속화 현상 속에 나타난 문제 해결은 도시의 회개 뿐이다. 그리고 도시 안에 사는 개개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구조 안에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도시 자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시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선교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회 중심의 생활이 가치가 있으며, 어떤 여가 활동과 재산과 지위 획득을 위한 활동 보다 가치와 이익이 있음을 확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프로그램은 역동적이어야 하며, 교회 구성원들과 특히 이런 면에서 아무런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새신자들을 진리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이며, 단호한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되 인간의 역할을 허용하신다.”⁷⁰⁾ 그러기에 교회는 선교의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수적 성장을 위해 복음을 희생하기 보다는, 복음을 통한 영적, 사회개혁운동에 더욱 앞장 서야 할 것이다.

70)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허성식 역 (서울: IVP, 1998), 191.

4.3. 중심지로서의 선교전략: 관문선교

도시의 특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중심지이다. 도시가 지리학적, 경제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기에 도시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관문선교이다. 관문(Gateway)이란 개념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장소를 의미한다. 선교 전략적 의미에서 관문도시는 미전도 지역에 선교적인 접근을 하는데 통로가 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⁷¹⁾ 자본주의 도입이후 경제적 자본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심각한 실업률과 집단농장 공장 폐쇄로 시골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골로 들어가지 않아도 많은 민족들을 만날 수 있고, 시골보다 도시가 복음의 수용도가 훨씬 높으며, 선교사의 안전 등을 감안할 때, 도시를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관문도시 선교는 이주 미전도 종족 일부를 제자화하여 사역자로 세우고 주변지역에 대한 교회개척으로 이어지는 등 복음의 창조적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관문선교는 중심지인 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도시를 선교의 교두보를 삼아 도시빈민사역, 캠퍼스 청소년 사역, 지식인층 전도, 비니니스 등을 통해 주변 지역과 농촌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스프링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를 집중적으로 선교 할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도시의 생활의 편리함이나 많은 군중 때문이 아니라, 도시가 복음화 되면 인근 지역의 복음화를 가속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의 각 도시들은 식민도시로서 데살로니가와 같은 도시는 상업도시였고, 아덴은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였다.⁷²⁾ 사도바울이 행했던 선교전략은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관문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도바울은 도시를 1차 주요 선교목표로 삼았다.⁷³⁾ 그러나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았다. 예를들면,

71) 국민일보 2002년 3월 11일자. 선교면, “선교교두보 관문도시 적극 공략을.”

72) J. Herbert Kane, 『선교신학의성서적 기초』, 113.

에베소에서의 선교는 아시아지방 전체의 복음화와 연결되었다.⁷⁴⁾ 그러므로 도시가 그 주변지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중심지로서 도시는 관문선교를 통해 주변지역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스프링보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4. 다양성에 대처하는 총체적. 전인적 선교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선교할 수 있는 곳이다. 현실적으로 농촌과 소도시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면 선교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가질 수 있다. 문화 인류학의 부족으로 인해 선교 전략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다행히 도시와 농촌 등 산촌 지역과의 지역적 차이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대학교, 서점, 영화관, 음악당, 문화회관이나 복지관 등 많은 시설들이 도시지역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화선교 전략을 펼친다고 할 때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 민족 뿐만 아니라 계급, 계층 및 여러 형태의 직업 및 사회집단이 섞여 거주하고 있다. 도시 내 이러한 종족집단의 다양성은 사역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우리는 학교나 병원, 제자훈련 등과 같은 선교 프로젝트를 강구하기 이전에 이들 가운데 있는 선교적 기회를 가늠하고 한두 개의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사회의 또 다른 특성은 인구의 이질성 (heterogeneity)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인구가 주로 이동을 통하여, 즉 지역적인 사회이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도시사회이다. 도시는 공통적인 전통을

73) 롤랑 알렌, 『바울의 선교 방법론』, 50

74) David Barrett & James Reapsome, *Seven Hundred Plans to Evangelize the World* (Birming AL: New Hope, 1988), 115.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하게 되고, 따라서 다양한 배경과 관념,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혼합은 서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반면에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⁷⁵⁾ 즉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고, 전통적인 연대감을 가지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주민의 이질화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가치관과 함께 작용하여 소위 근린(neighborhood)이나 공동체(community)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⁷⁶⁾ 여기서 근린이란 공통된 사회 유대를 인식하고 지리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을 말한다. 소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공동체라 하는 것은 가까이 함께 살고, 공공의 서비스와 자원에 의존하며, 이웃하기에 의해 보통의 의미와 같은 일차적 관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특정지역에 대해 다소간의 강한 일체감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의 규모가 커감에 따라 이러한 근린관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확대로 근린관계는 형성될 수 없으며 그러한 근린은 워스(Wirth)가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⁷⁷⁾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인간적, 피상적, 일시적, 분절적, 이차적(secondary)관계가 만연하는 삭막한 주거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시교회 역시 이런 영향을 받게 되어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서로 익명으로 지내게 되며, 이웃과의 교제가 사라짐으로 선교에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리처드 드리더는 도시 선교를 위한 교회 구조는 제도적인 조직, 역할, 건물,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기적 공동체 특성이 나타나며, 가족과 같은 연대감 속에서 도시인의 기본 욕구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75) Elmer H. Johnson, *Social Problems of Urban Man* (Homewood, IL: The Dorsey Press, 1973), 69.

76) Robert A. Wilson & David A. Schulz, 『도시사회학』, 유시중 외 2인 역 (서울: 경문사, 1988), 189-237.

77) Louis 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Richard T. Frederic Stont, the cityreader, LeGetes and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1999), 97-105.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선교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도시지역은 총체적, 전인적 선교임을 인식해야 한다.

4.5. 전문화에 따른 특별 관심그룹개발

도시는 복합 문화의 총체적인 집결지이다. 물론 개개인의 문화들이 있지만 도시의 구조적 상황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있고 심지어는 공동의 주거군을 형성하기도 한다. 도시에서 동질 단위의 사람들이 모이려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도시의 삶 가운데 생존력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도시교회들이 선교전략을 세울 때 어느 곳에 어느 동질 집단이 있는지 찾아내고 그들에게 알맞은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직업별, 취미별, 생활수준별, 지역적 근린성 등 사회적 결속력이 되는 원인을 찾아 그들을 고려한 성경공부나 취미그룹, 문화행사, 구제사역, 선교 기구들을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뉴브런즈의 신학교의 워렌 데니스(Warren Dennis) 교수는 21세기 도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적합한 선교”라고 주장했다. 도시에서의 복잡한 생활과 구조에서 교회중심적인 정적인 목회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도시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속적인 도시선교를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의 시설들이 그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영적 기관이 되어야 한다.⁷⁹⁾ 도시 교회는 모든 삶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78) Richard De Ridder, "Church Structures for Urban Mission," in *Discipling the City*, Roger S. Greenway ed., (Grand Rapids, MI: Baker, 1986), 71-88.

79) 임영효,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프라미스키퍼스, 2013), 114.

성도들이 각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도시의 모든 영역에 교회들이 참여하여 특별관심그룹을 개발하여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4.6. 변화에 대처하는 도시선교: 성육신적 선교

도시는 권력이 있는 곳이며, 또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⁸⁰⁾ 그러므로 도시의 선교는 개 교회 차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수행할 일이 아니다. 도시 자체가 방대하고 수많은 하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들도 도시 구조 안에서 자신의 동질성을 찾고 그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하며 소속감과 성취감 그리고 안정감 등을 갖고 산다. 그러므로 도시에서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은 어느 한 개인에게 집중하고 접근하기 보다는 저들이 소속된 문화와 조직들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더 많은 선교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변화에 대처하는 도시선교의 전략으로 바울의 선교방법인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즉 상황화 선교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폴 히버트도 그의 책 “성육신적인 선교”에서 도시사회 내에서 그 특성에 맞게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바로 성육신적 선교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특정시대와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기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섬기는 삶의 상황 속으로 성육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도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변화이다.⁸¹⁾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핵심은 성육신적 사역이다. 예수님은 신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인간들과 함께 하셨다. 성육신적인 선교사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내 문화와 배경과 위치를 버리고 선교현

80) 웨인 A. 믹스, 『바울의 목회와 도시사회』, 황화자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9.

81) 폴 G. 히버트, 엘로이스 히버트 메네시스, 『성육신적 선교사역』, 308

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도시의 특성인 변화에 대처하는 선교방법은 단연 성육신적 선교라 할 수 있겠다.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초기 미국 선교사들이 불교와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에 젖어 있는 한국 선교지에서 문화적인 접촉점을 찾으려고 애쓴 흔적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언더우드선교사는 그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원두우라고 바꾸고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다녔다. 이러한 상황화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선교사가 받을 붙일 수 있는 거점이 된 것이다. 한국문화에 이질적인 종교를 전하기 전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어 이질적인 문화의 충격을 줄이면서 그들의 최종 목표인 기독교화를 달성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킨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복음의 절대성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혼합주의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혼합주의는 철저히 피해 가면서 전체적인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선교에 있어서 문화를 적절히 이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문화적인 접촉점을 찾아 성육신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

4.7. 네트워킹 선교: 클럽, 법인체가 아닌 언약 공동체로서 선교

비브 그릭(Viv Either Grigg)은 도시 구조 안에 묶여 있는 개개인을 회심시키며 도시 구조에 거국적 차원의 변혁을 일으키려면 진정으로 헌신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⁸²⁾ 그래서 도시선교에 있어서 단연히 돋보이는 선교라고 하면 네트

82) Viv Either Grigg, *Companion to the poor*, (Monrovia, CA: MARC, 1990), 80-82.

워킹 선교이다. 도시에는 현지 조달이 가능한 선교자원으로 가득하다. 우선 일정 규모의 도시에는 교회들이 존재한다. 교회들은 연합하여 강력한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교회는 다른 교회와의 협력과 평신도 및 사역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선교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선교사역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선교자원과 선교의 대상 및 기회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일이다. 막연한 선교동원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동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합기관 결성이 필요하고 도시 교회들이 자기 교회 중심적 사역을 탈피하고 다른 교회들과 연합을 쉽게 감당한다면 전략의 상당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사도바울 역시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이와 같은 네트워크 망을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을 시도하면서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⁸³⁾ 한 지역 교회가 도시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 도시의 특성상 반기독교 정책이나 사상, 문화 행사들이 종종 열리는 곳이 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교회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투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도시 안에서는 교회들이 선교단체와 신학교들과 연합하여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략을 세워 인력이나 재정들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선교사역을 펼칠 수 있다. 네트워킹 선교는 이미 도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의 리디머교회를 담임했던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센터처치”에서 도시는 당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킨다고 말하면서 도시는 사회의 하위문화와 약자들을 끌어들인다⁸⁴⁾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의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의 도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83) 한화룡, 『도시선교』(서울: IVP, 1993), 122.

84) 팀 켈러, 『센터처치』, 355.

라는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히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러한 도전을 마주하도록 도와야 한다”⁸⁵⁾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연합단체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하며, 지역적인 협력을 통해 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법인체가 아닌 언약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여 도시선교에 참여하면 적극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선교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4.8. 소외와 빈곤을 대처하는 복지선교 역량강화

소외와 빈곤은 오늘날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해결되어 왔던 문제들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와 빈곤에 대한 도시교회들의 공적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도시의 지역사회가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이에 도시교회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함께 함으로써 선교적 접촉점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소외와 빈곤의 문제들을 선교적 과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교회는 그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함으로 교회가 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시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⁸⁶⁾ 또한 도시교회는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기억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선교적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도시의 소외와 빈곤의 특성에 따른 선교전략은 복지선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교회는 지역

85) Ibid., 356.

86) 임영효,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프라미스키퍼스, 2013), 114.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선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교회가 복지선교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⁸⁷⁾ 목회자는 건전하고 분명한 봉사신학을 정립하고, 교회공동체가 봉사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⁸⁸⁾ 목회자는 교인들 대상으로 설교 및 성경공부를 통해 복음 없이 사회구원을 외치는 것과 사회봉사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의 모순을 가르쳐야 한다.⁸⁹⁾ 선교전략적인 측면에서 도시교회는 영혼구원과 사회봉사, 즉 선교와 사회복지사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란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인데⁹⁰⁾, 복지사업은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교회는 교인들의 은사를 분석하여 절절한 복지선교 현장에 배치하고,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교인들의 복지선교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4.9. 소비주의를 향한 마케팅 시장으로서 선교

물질주의 혹은 소비주의가 실제로 우리들 생활에 어느 정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인간 역사를 이끌어 왔던 세 가지 중요 원동력 중의 하나가 바로 소비주의였음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즉 인간역사의 세 주동 세력은 “중세사회의 종교, 근대사회의 민족주의, 그리고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로 구별된다.”⁹¹⁾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소비자주

87) 하태선,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선교 사례 연구”, 『ACTS 신학저널』 제31집, 2017, 115.

88) 유장춘,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8(2002), 99.

89) 민장배, “교회의 본질적 기능인 사회봉사활동 실천 방안”, 『신학과 실천』 31(2012), 451.

90) 김만형, “사도바울의 선교와 목회 전략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의가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심각한 도시교회 선교의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다. 남미의 신학자인 파딜라(Padilla)는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을 하기 보다는 물질적인 세상을 그대로 닮아가거나 심하게는 사람들을 물질적 가치에 더욱 젖어들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⁹²⁾ 교회는 이런 현대인 문화를 직시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중심의 생활은 소비주의자들과 세속주의적 도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밀린 잠을 보충해주지도 않으며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주지도 않고, 주말의 여가 활동에서 얻는 자유로움을 제공치도 않으며, 지위와 재산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저들이 교회에 책임을 지고, 아울러 그를 위한 시간을 내는 교회 중심의 생활이 밀린 잠 보다 가치가 있으며,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며, 다른 어떠한 여가 활동과 재산과 지위 획득을 위한 활동 보다 가치와 이익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의 프로그램은 역동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교회 구성원들과 특히 이런 면에서 아무런 심리적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새신자들을 진리로 이끌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그리 빠르거나 용이치 않지만, 지속적이며 단호한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교회 안에 충성된 구성원들의 숫자를 늘리며, 조직교회의 규모를 늘리는데만 집중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교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4)라는 말씀을 확신하며, 숫적 성장을 위해 복음을 희생하기보다 복음을 통한 영적, 사회적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주의를

91) Lauren Langman, "Consumerism and Hegemony," *Consumers, Commodities & Consumption* (April, 2000) Issue 1, No. 1.

92) C. Rene Padilla, *Mission Between the Times* (Grand Rapids, MI: Eerdmans, 1985), 55.

향한 마케팅 시장으로서 선교를 해야 하며,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주의를 향한 선교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도시 특성에 따른 도시선교 전략을 살펴보았다. 도시선교는 급변하는 도시화 현상에 발맞추어 그 특성에 따른 선교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지역과 대상,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교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도시선교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른 선교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도시의 특성에 맞는 선교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선교는 성경적인 선교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본고에서 성경에 나타난 도시들, 즉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 니느웨,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지의 각 도시들을 살펴보았다. 도시들은 단일체가 아니라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혼합체이다.

도시선교의 제창자인 로저 그린웨이(Roger Greenway)는 “도시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는데, 이것은 곧 도시를 얻는데 실패하는 것은 세계를 제자로 삼는데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바울의 도시선교 전략을 보면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것은 그의 도시선교의 핵심적인 선교접근이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구속 사역을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수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교회 확장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이다. 도시는 각각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들의 다양한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시의 특성들

이 있다. 즉 규모와 파워, 세속주의, 중심지, 다양성, 전문화, 변화, 네트워킹, 소외와 빈곤, 소비자주의 등이다. 도시선교 사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이러한 도시의 특성에 맞게 선교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규모와 파워를 가진 도시 특성에 대한 대중선교, 세속주의에 대한 사회개혁운동, 중심지로서의 도시선교 전략: 관문 선교, 다양성에 대처하는 총체적, 전인적 선교, 전문화에 따른 특별 관심그룹개발, 변화에 대처하는 도시선교: 성육신적 선교, 네트워킹 선교: 클럽, 법인체가 아닌 언약 공동체로서의 선교, 소외와 빈곤을 대처하는 복지선교 역량강화, 소비주의를 향한 복음주의 전략 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시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시선교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인지하고 도시를 복음화 하는 일에 더욱 힘쓰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02년 3월 11일자. 선교면, “선교교두보 관문도시 적극 공략을.”
- 국민일보 2005년 1월 10일자, 미션면 “세계선교지도자 릴레이 인터뷰.” 복음주의 인류학자 폴허버트
- 기독교공보 2002년 5월 4일자, 장신대에서 “도시교회개척과 성장.” 그린웨이 교수 발표자료.
- 김남식. “도시선교의 신학적 이해.” 『신학지남』, 2000년 겨울호.
- 김만형. “사도바울의 선교와 목회 전략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연태. 『빌립보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노충희. 『도시 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4.
- 문병집. 『지역사회개발론』. 서울: 법문사, 1988.
- 민장배. “교회의 본질적 기능인 사회봉사활동 실천 방안.” 『신학과 실천』. 2012.
- 박광철. “도시화와 세계복음화문제.” 『교수논총 14집』.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1989.
- 법제처. 지방자치법 제7조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 송영만. “도시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 도시 선교전략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아가페성경사전편찬위원회. 『아가페성경사전』.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1.
- 엄재중. “가정사목회 반성과 전망.” 『사목』, 300호 2004년 1월호.
- 유장춘. “기독교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전략.” 『연세사회복지연구』. 2002.
- 이강천. 『2000년대는 한국교회 선교시대』. 서울: 두루선교회, 1989.
- 이상근. 『사도행전』. 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1.
- 이재환. “이벤트성 선교 이해를 지양하자.” 『목회와 신학』, 2002년 8월호.
- 이정성. “대중문화 시대의 그리스도인.” 강영안 편.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 수 없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임영효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쿤란출판사, 2001.
- 임영효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프라미스키퍼스, 2013.
- 정두영 외. 『jrcc TRANSFORMATION』. 서울: 프라미스키퍼스, 2010.
- 정병관. 『도전받는 현대 목회와 선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정병관. 『복음혁명을 주도하는 도시교회 성장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 정진우 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 하태선.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선교 사례 연구.” 『ACTS 신학저널』 제31집. 2017.
- 한국기독교교회회 선교신학회 편. 『선교신학』. 1997년 창간호.
- Allen, Roland. 『바울의 선교방법론』. 김남식 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3.
- Bauman, Zygmunt. 『새로운 빈곤』. 이수영 역. 서울: 천지인, 2012.
- Conn, Harvie M 『도시교회 개척에서부터 폭발적인 성장까지』. 강승삼. 홍용표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 Conn, Harvie M & Manuel Ortiz 『도시목회와 선교』. 한화룡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Cox, Harvey. 『세속도시』. 구덕관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Green, Michael. 『현대전도학』.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 Greenway, S Roger.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이재범 역. 서울: 여수룬, 1988.
- Harrison, Everett F. 『사도교회의 역사와 성장』. 신성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Hiebert, Paul G, Hiebert, Eloise M. 『성육신적 선교사역』. 안영권 이대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Keller, Timothy. 『센터처치』. 오중향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7.
- Kane, Herbert J. 『선교신학의성서적기초』. 이재범 역. 서울: 나단출판사, 1988.

- Meeks, Wayne A. 『바울의 목회와 도시사회』. 황화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Newbiggin, Lesslie. 『다윈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허성식 역. 서울: IVP, 1998.
- Amaladoss, Michael. "The Challenges of Mission Today." The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The Theological Thought*. Vol. 98. Autumn 1997.
- Barrett, David & James Reapsome, *Seven Hundred Plans to Evangelize the World*. Birming AL: New Hope, 1988.
- Bimbaum, Norman. *The Crisis of Industrial Societ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Bruce, F. F. *The Book of Acts*. Revis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8.
- Conn, Harvie & Manuel Ortiz. *Urban Ministry: the Kingdom, the City,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
- De Ridder, Richard. *Church Structures for Urban Mission, in Discipling the City*. Roger S. Greenway ed. Grand Rapids, MI: Beker, 1986.
- Elmer H. Johnson, *Social Problems of Urban Man*. Homewood, IL: The Dorsey Press, 1973.
- Gans, Herbert. *Urbanism and Suburbanism as Way of Life: Revolution of Definition*, Metropolis Washingt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 Grigg, Viv. *Companion to the poor*. Monrovia, CA: MARC, 1990.
- Kistemaker, Simon J.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Apost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 Langman, Lauren. *Consumerism and Hegemony*. Consumers Commoadities & Consumption. April, 2000.
- McGavran, Donald 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 Eerdman, 1980.
- Padilla, Rene. *Mission Between the Times*. Grand Rapids, MI: Eerdmans, 1985.

- Polhill, John B. *The New American Commentary: Acts*. Vol.26. 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92.
- Scherer, James A. *Gospel, Church & Kingdom*. Minneapolis, MN: Augsburg, 1987.
- Stewart, Charles Willian. *The Ministry as Family Counselor*. Nashville, TN: Abingdon, 1979.
- Stott, John. *The Sprit,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message of Acts*.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0.
- Wagner, Peter C.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Tools for Effective Mission and Evangelism*. Ventura, CA: Regal Books, 1987.
- Wirth, Louice. *Urbanism in the World Perspective*. New York: Crowell, 1968.
- Wirth, Louice. *Urbanism as a Way of Life*. Richard T. Frederic Stont, the cityreader, LeGetes and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1999.